

# 인건비 절감효과의 철망보온단열재 선보여

(주)한국단열

한국단열(대표 허만혁)이 일본과 기술 제휴, 냉온수관 및 급탕관, 소화관 등 각종 배관용 보온단열재인 「철망보온단열재」를 개발 국내 보온단열재 시장에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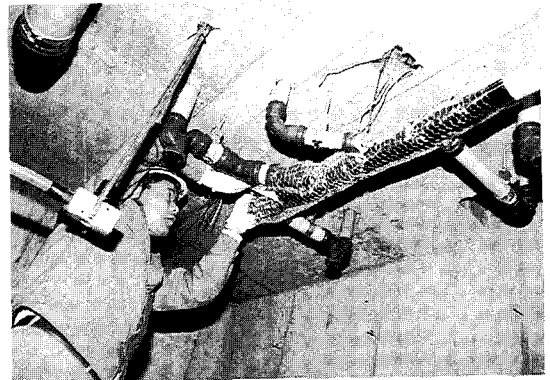
한국단열은 지난 6월28일 서울 장안동 한신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범시공을 실시했으며 경기도 파주에 생산공장을 설치, 본격 시판에 나섰다.

「철망보온단열재」는 유리섬유위에 부식방지의 아연도철망을 부착한 알미늄크라프트지로 감싼 후 철망 끝을 결속시키기만 하면 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철망을 쉽게 묶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숙련도가 낮아도 쉽게 시공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효과가 뛰어나며, 단열재가 배관에 밀착돼 결로를 방지할 수 있고 보수시 쉽게 해체할 수 있다. 특히 협소한 장소에서도 쉽게 작업할 수 있고 엘보나 티 등 작업이 까다로운 배관 부속부분의 보온작업도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유리섬유 단열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테이프로 일일이 감아줘야 하는 기존의 방식은 작업의 난이성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고 협소한 장소에서의 시공이 힘들며 시공후 테이프가 풀리는 등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철망보온단열재」는 철망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시공후 변형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화재시 독성 가스 배출의 위험도 없어지며 재활용이 가능해 경제성도 뛰어난 것 등의 부대효과도



시공이 끝난후 테이프로 냉·온수관



협소한 공간 및 엘보, 티 등 이음부분의 많은 배관에도 쉽게 시공이 가능한 철망보온단열재.

있다.

한국단열은 「재료비가 기존 공법보다 10% 정도 더 들지만 인건비 절감, 작업의 신속성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약 25% 정도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